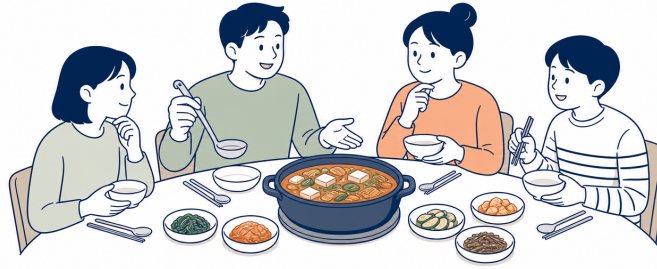




찌개가 가운데에 놓였을 때, 어떻게 먹으면 편할까?

Sharing Stew Comfortably

<https://hangulheadlines.com/lesson/shared-stew-table-etiquette>



1. 워밍업 (Warm-Up)

Start with two quick, personal questions.

1. 여럿이 먹을 때 어떤 음식을 함께 먹는 게 가장 편해요?
2. 처음 가 본 식당에서 모르는 점을 어떻게 물어봐요?

2. 짧은 대화 (Short Dialogue)

Read the dialogue together. Switch roles and read it again.

상황 친구들이 식당에서 찌개를 먹는 중

- 민지 찌개가 아직 너무 뜨거운데, 가운데에 놓인 찌개를 바로 먹으면 입천장을 데겠어.
 준호 그러니까 국자로 조금 덜어서 식히면 되지, 그런데 이 국자는 손잡이가 왜 이렇게 길어?
 민지 멀리 있는 사람도 편하게 쓰라는 뜻인가 봐, 아니면 찌개가 반격할까 봐 그런가?
 준호 나는 앞접시에 먼저 덜어 먹는 편이라서, 음식이 튀어도 피해를 조금 줄일 수 있어.
 민지 좋아, 그럼 네가 찌개를 맡아 줘. 나는 집게로 반찬을 골고루 나눌게.
 준호 잠깐, 그 집게로 떡을 집으려니까 떡이 자꾸 도망가서 거의 숨바꼭질이야.
 민지 그럴 땐 서두르지 말고 방식만 바꿔 봐. 젓가락으로 옮기면 더 쉬울 수도 있어.
 준호 결국 정답보다 중요한 건 모두가 편하게 먹고, 웃으면서 나누는 거네.

내용 확인 (Comprehension)

Answer with short, simple Korean sentences.

1. 민지는 무엇을 나누기로 했어요?
2. 준호는 왜 먼저 덜어 먹어요?
3. 두 사람은 식사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전

3. 어휘 연결 (Vocabulary Connections)

Match each word to the related sentence.

- | | |
|---------|--|
| A. 덜다○ | ○ 1. 같은 반찬도 식당에 따라 함께 먹기도 하고 따로 담아 먹기도 해요. |
| B. 도구○ | ○ 2. 공용 접시에서 가져온 김치를 작은 접시에 담아 먹었어요. |
| C. 방식○ | ○ 3. 미끄러운 버섯은 집게를 쓰니 훨씬 쉽게 들 수 있었어요. |
| D. 앞접시○ | ○ 4. 국물이 뜨거워서 각자 그릇에 조금씩 옮겨 담았어요. |
| E. 집다○ | ○ 5. 찌개 옆에 국자와 집게가 놓여 있어서 음식을 나누기 쉬웠어요. |

4. 하나만 다르다? (Odd One Out)

Circle the odd word out in each group.

1. 국자 · 집게 · 젓가락 · 앞접시
2. 찌개 · 김치 · 나물 · 국자
3. 나누다 · 덜다 · 집다 · 마시다

5. 오늘의 문법 (Today's Grammar)

Review the grammar below.

-는 편 (tend to be; rather on the side of)

어떤 성향이나 정도가 다른 것보다 비교적 그쪽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Means that someone or something tends to be that way or is relatively on that side.

-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I tend to get up early in the morning.
- 우리 동생은 낯을 가리는 편이에요.
My younger sibling tends to be shy around strangers.
- 이 식당은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와요.
This restaurant is relatively inexpensive, so many students come here.

6. 문법 연습 (Grammar Practice)

Use the word in brackets and apply the whole target grammar.

- 저는 찌개를 먹기 전에 작은 그릇에 조금 _____이에요. (덜어 놓다)
- 저는 식당에서 국자나 집게가 있는지 먼저 _____이에요. (확인하다)
- 제 친구는 반찬을 한꺼번에 많이 _____이에요. (가져가다)
- 저는 뜨거운 국물은 조금 식힌 뒤 _____이에요. (먹다)
- 우리 언니는 낯선 식당에서는 직원에게 먼저 _____이에요. (물어보다)

7. 찌개 메뉴로 주문하기 (Ordering from a Stew Menu)

Practice ordering from the menu below, then ask your partner which stew is easiest to share.

골목밥상 찌개 메뉴 - 연습용 가상 자료

메뉴	특징	가격	필요한 도구와 식기
김치찌개	매운맛	9,000원	국자
된장찌개	구수한 맛	8,000원	국자
순두부찌개	부드러운 맛	9,000원	국자
버섯전골	채소 많음	12,000원	국자·집게
해물찌개	해산물 많음	13,000원	국자·앞접시

함께 해 보세요. 둘이 먹을 메뉴 하나를 고르고 이유를 말하세요. / 한 사람은 손님, 한 사람은 직원이 되어 주문하세요. / 가장 나누기 편한 메뉴를 정하고 필요한 도구를 말하세요.

- 두 사람이 고르기 가장 좋은 메뉴는 무엇이에요?
 - 매운맛이라고 표시되지 않은 메뉴 중 무엇을 추천하고 싶어요?
 - 이 메뉴에서 추가하고 싶은 음식은 무엇이에요?
- 쓸 수 있는 표현 이 메뉴로 주문할게요. / 앞접시를 더 주실 수 있어요? / 어떤 찌개가 가장 잘 나가요?

정답과 파트너 가이드 (Answers & Partner Guide)

Suggested answers and brief support for the tutor or exchange partner.

열린 답은 예시와 같을 필요가 없습니다. 정확한 의견보다 의미가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소통되는지를 중심으로 피드백하세요.

2. 짧은 대화 - 내용 확인 정답 (Comprehension Answers)

Short sample answers for the dialogue questions.

1. 민지는 반찬을 나누기로 했어요.
2. 음식이 튀었을 때 피해를 조금 줄이려고요.
3. 모두가 편하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3. 어휘 연결 정답 (Vocabulary Answers)

Use the letter-number pairs to check each connection.

어휘 연결 A-4 / B-5 / C-1 / D-2 / E-3

4. 하나만 다르다? 정답 (Odd One Out Answers)

Other well-reasoned answers may also be possible.

1. 앞접시 - 나머지는 음식을 옮기는 도구예요.
2. 국자 - 나머지는 음식이에요.
3. 마시다 - 나머지는 음식을 옮기거나 나누는 행동이에요.

5. 오늘의 문법 참고 (Grammar Notes)

Use this bilingual reference when explaining the pattern.

‘-는 편이다’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성향, 상태, 정도를 말할 때 사용합니다. 완전히 그렇다고 단정하기보다는 다른 경우와 비교했을 때 대체로 그런 쪽에 가깝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말을 조금 부드럽고 조심스럽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저는 조용한 편이에요’는 항상 조용하다는 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비해 대체로 조용하다는 뜻입니다.

‘-는 편이다’ is used to describe a person's or thing's tendency, state, or degree. Rather than saying something is completely true, it means that it is generally closer to that side compared with other cases. It also makes a statement sound softer and less absolute. For example, ‘저는 조용한 편이에요’ means ‘I tend to be quiet’ or ‘I am relatively quiet,’ not that the person is always quiet.

동사에는 ‘-는 편이다’를 붙이고, 형용사에는 보통 ‘-(으)ㄴ 편이다’를 붙입니다. 과거는 ‘-았/었던 편이다’, 미래나 추측은 ‘-(으)ㄹ 편이다’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보통 ‘편이다’ 형태로 문장을 끝냅니다.

Attach ‘-는 편이다’ to action verbs and usually ‘-(으)ㄴ 편이다’ to adjectives. For the past, forms such as ‘-았/었던 편이다’ can be used. The phrase usually appears at the end of the sentence as ‘편이다.’

6. 문법 연습 정답 (Grammar Practice Answers)

Check the complete conjugated target-grammar phrase in context.

1. 저는 찌개를 먹기 전에 작은 그릇에 조금 덜어 놓는 편이에요.
2. 저는 식당에서 국자나 집게가 있는지 먼저 확인하는 편이에요.
3. 제 친구는 반찬을 한꺼번에 많이 가져가는 편이에요.
4. 저는 뜨거운 국물은 조금 식힌 뒤 먹는 편이에요.
5. 우리 언니는 낯선 식당에서는 직원에게 먼저 물어보는 편이에요.

7. 찌개 메뉴로 주문하기 - 파트너 팁 (Practice Tips)

Encourage comparison, follow-up questions, and one shared decision.

서로의 식사 습관을 비교하고, 편한 방식을 이유와 함께 말하게 하세요.

응답 예시 된장찌개를 주문할게요. 구수하고 국자로 나누기 편해요.

파트너는 각 답 뒤에 ‘왜요?’, ‘다른 선택은요?’, ‘조건이 바뀌면요?’ 중 하나를 덧붙여 대화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